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상생협력 '맞손'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충무공 발자취 영상 제작 추진

대도시 합동 직거래장터 등 논의

전남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5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2024년 제1차 정기회를 열어 상생과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정기회는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성·장흥·강진군 등 4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8년 특량만과 강진만의 청정연안 보존과 인근 4개 군의 공동 번영을 위해 발족했으며, 행정·해양·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의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제5대 협의회장 결정 등 협의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4개 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순신 장군 테마사업 용역'의 중간보고 시간을 가졌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있던 충무공의 발자취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공동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첫선을 보인 후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로 호응을 받은 '군민화합 합창 페스티벌'을 오는 27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보성·장흥·강진군 등 4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를 열어 상생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이 외에도 ▲군민 관광·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합동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4개 군 공직자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4개 군 공직자 축구대회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4대 협의회장인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 의장의 임기가 오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이 제5대 협의회장으로 결정됐다.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는 정기회 시작 전 고흥만 방조제 불양장에서 4개 군의 군수와 군의

회 의장,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량 수산 종자인 점농어 치어 5만6000마리를 공동 방류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5년간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가 보여준 협력과 폭넓은 교류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발전과 번영을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현안과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증마동 분동

30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광양시가 증마동 분동(分洞)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광양시는 '광양시 생애복지플랫폼' 신규 정책의 하나로 증마동을 중동, 마동으로 나누는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증마동은 1989년 광양지구 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되면서 2개 법정동인 중동과 마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 설치됐다.

증마동 담당 면적은 전국 평균 행정동 규모보다 2배 넓다. 인구수는 지난달 기준 5만7691명으로 전국 2113개 행정동 가운데 30번째로 많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 1122명보다 2배가량 많은 2185명이다.

광양시는 행정 민원 처리시간을 줄이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증마동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규칙하게 설정된 중동과 마동의 경계를 대로(大路)와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증마동 분동 정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광양시는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추진계획을 세우고, 중동·마동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내년 조례안 개정을 거쳐 신청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김순호(맨 왼쪽) 구례군수가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수박 농장을 찾아 '수직 재배 시범단지'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수박 수직 재배 시범단지' 확대

2030년까지 5ha 규모로

구례군이 올해 '수박 수직 재배 시범단지'를 오는 2030년까지 5ha 규모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수박 수직 재배는 수박을 서서 재배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포복 재배'보다 노동 강도를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포복 재배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수박 수직 재배 시범단지를 올해 0.2ha에서 2026년 1.6ha, 2030년 5ha까지 확대할 계

획이다.

올해는 수박 수직 재배 시범 사업을 청년 농업인 등 2개 농가가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3일 영농 2년 차인 청년 농업인 농장을 둘러봤다. 구례군은 수박이 고소득 미래작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수직 재배 단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례에서는 친환경 재배 11 농가를 포함한 40여 농가가 20ha의 온실에서 연간 1000t의 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농가는 1곳당 평균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전남 의대 유치 도민투표로 결정하자"

장경순 순천시의회 제안

순천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 의대 유치 대상지를 놓고 도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장경순 순천시의회(더불어민주당·왕조1·사진)은 지난 4일 열린 278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유치와 관련한 도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애초의 통합 의대 계획부터 지금의 공모 절차까지 지역과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돼왔다"며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전남도민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또는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의 분석 결과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작성됐다고



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등 그동안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시행됐다"며 "도민투표가 가장 확실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방법이자 지역 분열을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비판했다.

그는 의대 유치를 둘러싼 동부권과 서부권의 계속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공모 방식이 아닌 지역의 목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여수 응천 장도공원, '예술의 숲'으로 탈바꿈

여수 응천 장도공원이 정정 숲과 예술 치유가 어우러진 '예술의 숲'으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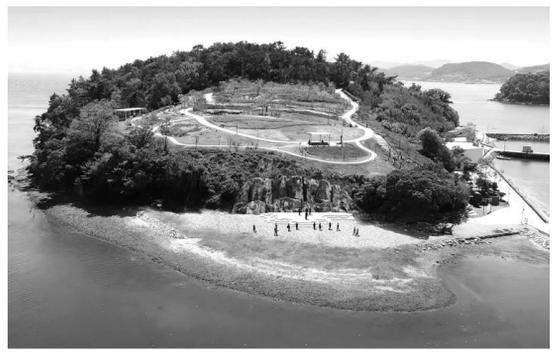
여수시는 최근 응천 장도공원에 9만2865㎡ 규모 '예술의 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예술의 숲'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국·도비 22억원 포함 49억원이 투입돼 추진됐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0년 전남도와 GS칼

텍스와 '예술의 숲'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조경·문화예술·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원계획을 세우고 3년간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이곳은 다도해 정원과 난대숲 복원, 하프정원, 해안갑판길 등 산책로, 쉼터, 야외무대를 갖췄다.

'예술의 숲'은 정정 숲과 예술이 어우러진 자연



여수시 응천 장도공원 전경.

속에서 방문객들이 휴식과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난달에는 장도공원 입구에 인공암 야외무대가 마련됐다. 이곳은 다양한 분야의 공연장으로 활용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문화예술 무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송아지 3000두 럼피스킨 백신 접종

보성군이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럼피스킨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태어난 송아지 3000여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소 럼피스킨은 지난 2023년 10월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으며, 군은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축전염병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지난 2023년 실시한 백신 접종 후 럼피스킨 항체 형성을 유지를 위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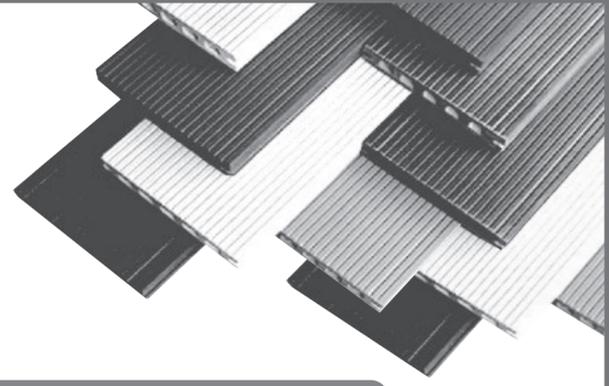
백신은 군청 농축산과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며, 접종방법은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6명의 공무원이 방문해 실시하고, 50두 이상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전업농 농장주는 백신 접종 요령을 숙지해 백신 인수 즉시 이른 시일내 접종 완료와 철저한 농장 소독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정정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